

15분 모의고사 Final 1회 정답 및 해설
(0706 모의평가)

문 법 1.④ 2.①

1. 형용사 파생접사 '-답-'

정답해설 : [조건] 1.로부터 ㉠과 ㉡은 -답2-에 해당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조건] 2에서 -답1-은 단어보다 더 큰 단위에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제시된 단위가 '싸움'에서 이긴 '장군'으로 이는 명사 '장군'과 이를 수식하는 관형사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관형사절 + 명사]+-답다'의 구조를 ㉠과 ㉡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예]에서 ㉢, ㉣, ㉤이다. 그리고 [조건] 3.에서 -답1-은 자격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므로 역시 ㉠, ㉡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답1-에는 ㉢, ㉣, ㉤이 -답2-에는 ㉠, ㉡이 해당된다. [답] ④

★ 생각하자

접사에 대한 문항을 수능에서 단독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조건에 따른 분류를 묻고 있는데요, 이러한 패턴의 문항은 조건을 순차적으로 읽으며 찾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풀면 틀린 수 있습니다. 명확한 조건부터 제거해봅시다.
조건 1: 모음 뒤에 결합하면 '-답1-' = ㉢, ㉤
조건 2: 구 단위 뒤에 결합하면 '-답1-' = ㉣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답다.)
조건 3: 분류한 것을 확인하는 정도로 활용

2. 대명사 (품사통용)

정답해설 : <보기>는 동일한 대명사가 상황에 따라서 2인칭과 3인칭으로 쓰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①의 '저희'이다. 가.에 사용된 '저희'는 1인칭인 '우리'의 낮춤말이다. 나.에 사용된 '저희'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답] ①

★ 생각하자

품사 문제가 단독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품사통용'을 물어 봅니다. 즉, 형태는 같지만 다른 품사로 쓰이는 단어의 관계를 물어본다는 것이죠. 특히 '대명사'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었으므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에서 대명사 1인칭은 화자를 지칭하는 말이며, 2인칭은 청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3인칭인 것이죠. 또한 3인칭 주어를 다시 지칭하는 말을 재귀칭인데요. 재귀칭도 3인칭입니다. 영어에서 재귀칭은 self를 붙이면 되지만, 우리말에서는 1인칭과 2인칭의 형식을 빌려 재귀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미지칭과 부정칭이라는 것도 있는데, 미지칭은 몰라서 묻는 대상을 의미하고, 부정칭은 특정한 대상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아닌 대명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지칭과 부정칭도 화자와 청자는 아니므로 3인칭입니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 선택지를 대응해봅시다.

- ① 저희=화자=1인칭 / 저희들=애들=3인칭
- ② 너=청자=2인칭 / 누구=특정대상 아님=부정칭=3인칭
- ③ 그=3인칭 / 그=사실=지시 대명사
- ④ 너희=청자=2인칭 / 너희=청자=2인칭
- ⑤ 우리=화자=1인칭 / 우리=화자=1인칭

독 서 3.⑤ 4.② 5.④ 6.②

[3-6] 인문 '개인적 선호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문해설 : 살면서 부딪히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가 정당화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진 글이다.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과의 미묘한 함수 관계가 노출되고 있다. 필자는 다양한 예를 동원하여 이러한 미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의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평주의자의 입장을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누어 그 대처 양상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개인적 선호와 도덕적 정당성

★ 생각하자

공평주의, 도덕적 평가와 관련된 지문은 수능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이러한 '~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사례에 '~주의'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실적 사고(중심 화제의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는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선택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선택이 과연 정당한 도덕적 평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결국 이 글은 다양한 삶의 양상에 따라 행해지는 '개인적 선호의 도덕적 정당성'을 그 중심 화제로 삼고 있다. [답] ⑤

4. 논리적 사고(추론 과정의 파악)

정답해설 : ㉠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의 판단 내용과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는 두 판단 내용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 그런 만큼 ㉠의 추론 과정에는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가 전제되어 있다. 곧,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를 놓아 주지 않았을 것이다 → 철수는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 주었다 → 그러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

를 표현한 것이다'는 추론 과정이 성립될 수 있다. [답] ②

★ **생각하자**

'전제-결론'은 최근 신유형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특히 전제를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문항이 자주 출제되는데, 이때 지문의 밑줄 친 내용은 결론이고 선택지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지문)-왜냐하면-전제(선택지)-때문이다'의 형태로 문장을 연결해보세요. 전제는 결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혐의자가 철수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철수가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5. **추론적 사고(이유 및 근거의 추리)**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기>는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과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이가 온건한 공평주의자라면 일단은 상황적 조건의 동일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상황이 동일하다면 개인적 선호에 따라,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면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런데 할머니들이 처한 상황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순이는 간병할 사람이 없는 친할머니를 간호함으로써 도덕적 흐름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답] ④

★ **생각하자**

이 문제는 실제로 현장에서 선배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보기>의 함정 때문이죠. 여러분도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에 낚였나요? 지금 보기에 외할머니와 친할머니의 상황이 정말 완전히 동일한가요? 아니죠. 외할머니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는 없습니다. 온건한 공평주의자라면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해야 합니다. '~주의'와 같은 철학이론이 나오면 <보기>에 사례가 나오는 것이 수능의 패턴입니다. <보기>도 꼭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6. **비판적 이해(반응의 타당성과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내용을 파악한 후 본문과 더불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된다. <보기>는 딜레마에 처한 왕이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간다는 내용이다. 왕의 직분은 '도덕적 판단'을, '아버지와 더불어 도망함'은 '개인적 선호'를 의미한다. 본문에 나오듯이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적 선호에 대한 완전한 배제를 주장할 것이다. 그런 만큼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이는 일에 대해 지지를 보낼 것은 당연하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개인적 선호가 반영되었다면 왕은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질 않을 것이다. ③ 공평주의자들이 갖는 관심은 도덕적 정당성의 여부인 만큼, 왕이 지위를 버리느냐의 여부는 관심 사항이 아니다.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라면 왕의 아버지를 구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질 않을 것이다. ⑤ 민수의 행동은 '상황의 동일성'에서 나온 개인적 선호이므로 상황의 동일성과 관계없이 나타난 왕의 금지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

★ **생각하자**

이 문항도 수능 패턴문항입니다. 지문에 강경VS온건 처럼 입장이 다른 학자가 제시되면 이들을 '대비'하는 문항은 패턴입니다. (과인과 포퍼 지문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누가 어떻게 주장한다'를 명확하게 지문에서 찾아야 선택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강경은 무조건 개인적 선호 허용할 수 없고, 온건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해서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풀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문항의 발문처럼 '가장 적절한 것은?'을 찾을 때는 한방에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100% 적절한 선택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겠죠. 따라서 틀린 선택지를 다 소거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최선의 선택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 학

7.④ 8.④ 9.③ 10.④

[7-10] 현대소설, 이문열, '고죽'

작품해제 : 어려서 부모를 여윈 '고죽'은 서예가인 석담 선생에게 맡겨진다. 석담은 '예(藝)'보다 '도(道)'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도(道)'보다 '예(藝)'가 더 센 고죽의 작품 세계를 못마땅해 한다. 고죽은 스승과는 달리 보편적 원리로서의 '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서예 역시 독특하게 추구되어야 할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스승과는 다른 독자적 세계를 추구해 간다. 중년의 나이에 스승과 대립하고 스승 곁을 떠나기도 했던 고죽은, 스승이 죽은 후에야 스승이 자기를 총애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고죽은 죽음에 임박하여 자신의 작품을 회수하여 불태우면서, 그 불꽃을 통해 고죽은 자기 부정의 예술혼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인 금시조가 날아오르는 것을 확인하며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작품은 예술에서 작가의 정신 세계를 담아내려 했던 스승 '석담'과, 서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제자 '고죽' 간의 갈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 한 예술가의 자기 부정의 예술혼

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제자인 '고죽'과 스승인 '석담'의 첨예한 갈등을 그림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두 인물이 상대방의 의견을 공박하며 예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뒷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30년 후로 비약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야기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답] ④

8. 추론적 사고(세부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㉔의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㉔에 담겨 있는 고죽의 심리는 원망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움을 느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답] ④

[오답피하기] ㉑의 앞에 나온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로 볼 때, 스승의 집착을 못마땅해 하는 '고죽'의 심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㉒에서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라는 내용이 드높은 예술의 경지에 대해 회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㉓의 전후 상황을 통해 '석담'이 '고죽'을 나무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㉔의 앞에 나온 내용으로 볼 때, '글씨 한 자에 쌀 뒷박' 얘기가 재주는 많으나 자신의 뜻에 어긋난 '고죽'을 '석담'이 질책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㉕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그'가 초현이라는 것과, '그'에 대한 '고죽'의 기대감이 나타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9.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비판)

정답해설 : <보기>의 핵심 내용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㉔에서 '고죽'은 서예 작품을 '문자로 된 나의 꺾땀기'로 비유하며, 그것이 낮모르는 후인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하고 있으므로, <보기>를 통해 작품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음을 근거로 ㉔에 나타난 '고죽'의 생각을 비판할 수 있다. [답] ③

[오답피하기] ㉑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였다는 것은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㉒ '도'와 '현묘함'이 서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백경, 도둑, 장인, 야공에게도 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㉓ 서예가 실용성이 없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㉔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어떤 경지를 설정했다는 내용으로서 <보기>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10.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고죽'은 젊었을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스승에 대해 반대하고 스승 곁을 떠났지만, 스승이 죽은 후엔 오히려 스승을 그리워하며 나이가 들수록 스승이 서예 기법의 가치를 깨닫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고죽'이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때,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에 대해 작가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④

[오답피하기] ㉑ '고죽'과 '석담'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㉒ '고죽'이 젊었을 때 예술의 드높은 경지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스승과 결별까지 했지만 결국 나이가 들수록 깨달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㉓ 작가는 서예가인 '고죽'과 그의 스승인 '석담'의 만남과 헤어짐을 극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㉕ '석담'과 '고죽'의 고뇌를 통해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의 정신적 고뇌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